

# 독창적 기술 개발 통한 고객 만족 기여

## 축적된 기술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주력



◀ 정홍웅  
한진산업 대표이사

1960년대 후반 고도성장과 수출 증대로 인해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구매력이 크게 증가되고 있을 당시 한진산업의 정홍용 사장은 머지않아 활성화 될 포장 산업의 잠재 수요를 예측하고 이 무렵인 1996년 한진정판사를 설립했다.

이를 시작으로 꾸준한 성장 곡선을 탄 한진산업은 34년의 노하우를 자랑하며 각종 그라비아 인쇄와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1999년 일본 오모리 공업과 기술제휴를 맺고, 열전사지 생산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2000년에는 일본 도화니공업과 제대기 기술 제휴를 맺고 각종 기계 설비를 도입했다.

2001년에는 아디다스 솔로몬 스포츠와 부포장재 공급 전격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진은 일본 최고의 내의 제조 업체인 (주)군제의 공식협력업체로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진은 8도 인쇄기, 1도 인쇄기, 제품 가공기 1, 2, 3호, 자동 포장기, 절단기, 반접기계, 재단기, 열전사 인쇄기, 자동 열전사기, 스티커 라벨 인쇄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있으며 ERP SYSTEM을 도입해 전 라인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정보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 동안 꾸준히 품질개선 경영실천을 통한 노력과 전 직원이 합심으로 통해 ISO 9002 품질인증 시스템을 획득한 바 있다.

### 고인력 바탕으로 고품질 생산

기업의 흥성망쇠는 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이다.

정홍용 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조업은 아직도 낙후된 시설과 작업 환경으로만 인식



◀ 서울시 독산동에 위치한 한진 공장 전경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느 제조업이든 인력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어 직원들의 변동이 잦아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며 제조업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기업에서도 오로지 제품 생산에만 주안을 두게 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다 보니 우수인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진은 임직원 모두가 고인력으로 구성돼 있어 회사 발전에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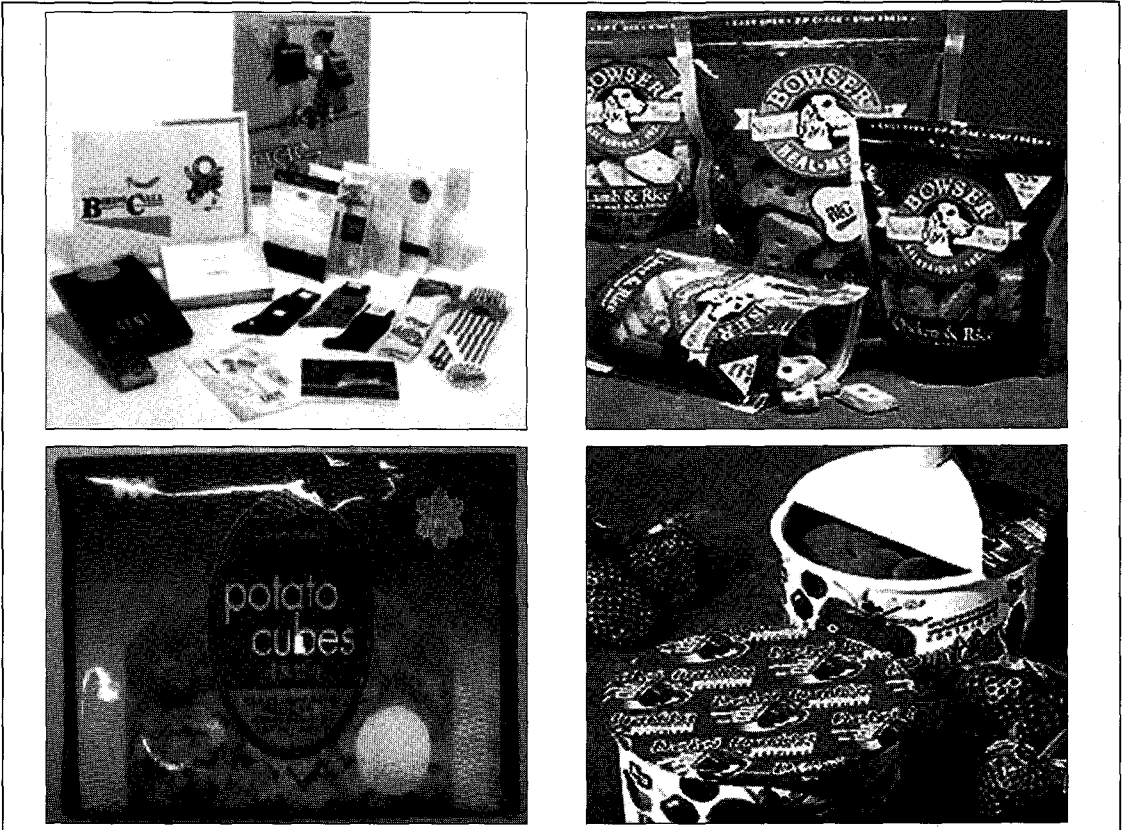
"제조업이라 해서 기존의 제품을 생산하며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많은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객의 욕구에 부응코자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행해져야만 한다"고 홍 사장은 강조했다.

때문에 한진은 국내 전시회 뿐 아니라 세계 전시회 참관은 물론 일본의 (주)군제와 기술제휴를 맺어 각종 교육을 통한 정보 교류를 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 ADIDAS-SALOMON사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유 및 기술개발 박람회에 포장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진의 구성원 평균 연령은 20대로 대부분 젊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열린 생각은 물론 젊은 패기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성으로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 한진이 생산하는 각종 파우치 제품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며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한진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밝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정 사장은 이런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연구 개발로 빚어낸 제품 생산

한진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각종 파우치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진은 사이드셀링 포장재, 3방 스텐딩 지퍼 포장재, 치즈포장재, 스포트 캡 포장재(셀프셀링 포장재, 스티커 라벨, 자동 열 전사 제품등을 생산하고 있다.

싸이드셀링 포장재(포리백)는 내의, 양말, 제과, 농수산물(김)등을 포장하는데 적합합니다. 포리백에 점착제(무용제)를 도포하여 포리백 개봉이 가능하다.

3방 셀링 포장재(파우치)는 포장재의 3면을

5mm~10mm로 열 셸링을 함으로써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포장재로 식품류 포장재로 적합하다.

지퍼 3방 셸링 파우치는 3번 제품과 유사하며, 지퍼 Feature를 추가하여, 소비자가 사용 후 다시 지퍼를 닫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켰으며 M방 파우치는 포장재의 양면에 Gusset을 넣어 제품 높이 즉 부피가 큰 액체가 아닌 제품을 포장하기에 적합해 티슈, 기저귀, 여성생리대 등의 포장에 쓰인다.

T방 파우치는 포장재 후면이 T자 모양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써, 셸링부위를 최소화하여 제품이 새는 것을 극소화해 식품류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PE파우치는 기본적인 파우치로서 인쇄사양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제품에 사용되며 PE튜브 스타일로써 셸링 이음매가 없어 제품이 새는 것은 방지해 설탕봉투 등에서 많이 쓰인다.

또한 스티커 라벨류는 제품 수입의 경우 포장재와 함께 수입 시 국내표기사항 등을 부착시킴으로써 포장재 전체의 제작의 시간적, 금전적으로 절약되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의류 및 섬유제품에 자사의 로고나 CI를 열 전사하는 자동 열 전사제품 등을 생산되고 있다.

### 신뢰를 통한 고객 욕구에 부합

독자기술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 사장은 “하루에도 새로운 제품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기업이 성공하려면 타사 제품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진은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배달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품 판매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 이미지 즉 우수한 포장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진에서는 그래픽 즉 디자인에서부터 구매력 증대, 최고의 필름 품질, 보다 견고한 제품 보호 기능까지 다기능을 갖춘 포장재를 생산해 고객 욕구에 부응코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

한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오직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제품의 고급화는 물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상의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갈 때만이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 포장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정 사장은 말했다.

오직 한 길만을 추구해 온 정 사장의 미래지향적 경영 이념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은 앞으로도 한진의 성장을 이끄는 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존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습득 위주보다는 독창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해 기술에 의한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다져나갈 한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 본다.

권해진 기자